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소식지 1호
2010년12월15일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쟁취!

주소_인천부평구부평5동577-3민주노총인천본부2층 전화_032-525-1810 팩스_525-2420 홈페이지_http://dwbi.nodong.net 이메일_gmdwbi@gmail.net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위해 인천지역사회가 나섰다

9일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발족



12월9일 오전11시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고공농성장 앞에서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책위에는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민주당/사회당/진보신당인천시당 등 야5당을 비롯한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하여 GM대우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성자들에 대한 사측과 경찰의 어떠한 강제진

압시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고,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GM대우자동차가 지역경제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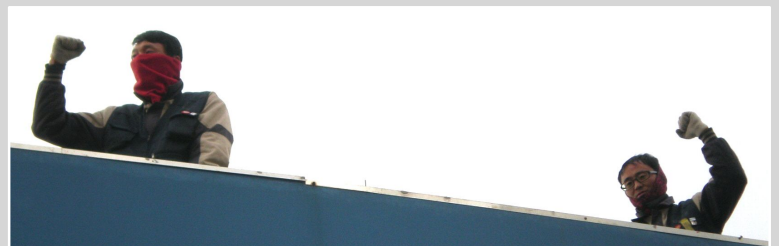
또한, 여론 확대와 아카몬 GM대우사장과의 면담 추진계획도 함께 밝혔다.

성실교섭 촉구와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3보1배

- 12월16일(목) 오후3시
- 부평역소방서~정문

인터뷰

고공농성 중인 황호인, 이준삼 조합원



▲ 고공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

= 요구는 하나. 해고자의 정규직 복직이다. 지난 3년간 농성하며 원청인 GM대우차와 하청업체에 각각 교섭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간 계약해지된 동지들이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또 다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최근 대법원 판결도 나왔듯, 이제는 원청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해고된 후 1,000일을 넘기며 천막농성과 여러 투쟁을 해왔지만 이 사태는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갈 수 있는데 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올라오게 됐다.

▲ 고공농성 생활은 어떤지.

= 방한용품이 올라오지 못해 힘들다. 날이 추워진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다.

하지만 추위 외에는 어려울 것 없다. 아치 밑 농성장에 조합원은 물론 많은 사람이 찾아와 연대하고 응원해 주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인천대책위원회 참여단위

국민참여당인천시당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당인천시당 사회당인천시당 진보신당인천시당 |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연대 |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운수버스경인본부 현대제철지부 GM대우차지부 | 가톨릭청년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민예총인천지회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연대 인천지역교육대책위원회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다함께인천지회 전국노동자회인천위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공동대책위원장_김일희 김철홍 이상구 이용규 이원준 장동훈 전재환 조성혜

[지역원로] 양승조 양재덕 염성태 오순부 윤인중 원학운 이정옥 이충각 정윤섭 조광호 홍재웅 홍학기 황영환 [종교계] 광재호

김영섭 김정대 김지태 류재성 문장영 박경서 박성호 백광모 백영민 정한식 윤인중 이진권 조정현 호인수 홍성국 홍현웅

[학계] 김민배 김영규 양준호 유해숙 윤진호 이갑영 [법조] 김상하 [정당] 전우진

'대화로 해결하자' 대표단 집단단식농성

대책위 두 차례 면담 요청...GM대우차 묵묵부답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 대표단들이 14~15일 양일간 정문 앞에서 집단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가 마이크 아카몬 GM대우자동차사장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면담'을 14일 오후 5시로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답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도 면담요청을 했었지만 회사는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만남을 회피했다.

대책위는 “온갖 세금특혜는 다 받는 기업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을 포기한 것은 옳바르지 않다”며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망라된 대책위와의 면담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사의 대화 거부에 대하여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GM대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GM대우는 지난 8일 금속노동조합이 공식 요청한 교섭에 대해서도 “당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가 교섭에 임할 의무는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도 다자간 교섭을 시작한 만큼,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13일 교섭 요청 공문을 재발송했다.

주간 투쟁일정

12.13(월)

18시 촛불문화제

12.14(화)

09시 대표단 단식농성

12시 전국해고자대회

13시 대표자회의

18시 촛불문화제

12.15(수)

07시 대시민선전전

09시 대표단 단식농성

11시 GM대우 대화 촉구 기자회견

14시30분 금속노조

수도권 결의대회

15시 청와대 사회통합

비서관-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8시 촛불문화제

12.16(목)

15시 성실교섭 촉구와 투쟁승리 3보1배

(부평소방서->정문)

18시 촛불문화제

12.17(금)

18시 촛불문화제

(계양산대책위 주관)

12.18(토)

15시 대책위 집중집회

12.19(일)

18시 인권영화제 현장

상영회

기본일정

07시 출근선전전

12시 중식집회

17시 퇴근선전전

인천시의원들 조속해결 촉구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재병, 류수용, 강병수, 정수영, 이용범시의원 ©인천뉴스

지난 13일 오전11시, 인천시 시의원 14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GM대우 아차 고공농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5명의 시의원들은 “GM대우는 인

천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해 왔으며, 실제로 원청 사용자 책임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고용노동부, 인천시,

경찰 당국은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하며, GM대우자동차는 조속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의 동참을 확대해 추후 인천시의회 전체 입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고공농성 두 동지에게 응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황호인 010-3286-3638 | 이준삼 011-9615-3915

후원계좌_우리은행 1002-241-082201(곽동표)